"화쟁은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실천"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불교적 대안으로 소통과 화합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하고 평화재단이 주관하는 '화쟁리더십 아카데미'가 지난 1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27일까지 10주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등 한국불교의 대안사상과 리더십의 원형을 일깨워줌으로써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보는 법석인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는 10주동안 정치와 경제, 국제정세, 문화, 국가, 인권, 통일, 화쟁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한 뒤 토론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제1기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뿐만 아니라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변호사, 종무원, 불교단체 활동가 등 90여 명이 참가해 당초 정원 7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카데미는 지난 11일 입학식과 함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입학식 인사말에서 "화쟁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만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됐다"면서 "이 인연이 내 삶이, 우리 단체의 삶이 다툼을 극복하고 잘 융화하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축사에서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 시대 불교지도자가 알아야 할 사회 제분야가 모두 포함돼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불교의 화쟁가치를 이 사회와 역사속에서 실현하길 축원하고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한국불교가 중생의 고통을 보듬지 못한채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얼마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서원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학식에 이어 첫 강사로 나선 조성택 교수는 '화쟁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특강에서 "화쟁은 갈등의 현실에서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전제한 뒤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갈등과 분쟁의 해결 주체였던 정부와 국가마저도 갈등의 대상자로 전락한 현 상황에서 화쟁사상은 분쟁 해소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주장했다.

지난 11일 입재한 화쟁리더십아카데미. 한국불교의 대안사상과 리더십의 원형을 일깨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신재호 기자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 입재
정치 경제 문화 인권 통일 등
전문가 강연-갈등 극복 논의

아카데미는 입학식에 이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012년의 선택과 국가리더십(4월18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 대안을 제시한다(4월25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흔들리는 세계, 어디로 가는가(5월2일)', 안상수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가 '문화로 보는 생명, 평화사상과 화쟁(5월16일)',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쟁과 한국사회의 선진화(5월23일)'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우리시대의 인권을 말한다(5월30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이 '21세기 민족미래, 통일을 향한 결단(6월13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와 화쟁사상(6월20일)' 등을 주제로 강연하며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마지막 주인 6월27일에는 수료식을 갖고 그동안 배운 화쟁사상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본지는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 강의내용을 요약, 매주 수요일 발행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조계사 은해사…
일본 지진피해 지원 손길 이어져

대지진으로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제10교구본사 은해사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일본 지진피해 지원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과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구본사마다 살림살이가 어려울 텐데 마음을 내줘 고맙다"면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조계사도 지난 3월13일부터 한 달간 피해 지원을 위해 경내에 설치한 '세계일화 모금함'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이날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하며 모금함에 금일봉을 기탁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은 "비록 독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한·일간 서로 소통하며 잘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해사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 불사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은해사가 지난 12일 일본지진피해 구호기금을 전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학인스님 대상 논문 공모전
조계종교육원, 9월30일 마감

종단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인논문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승가대,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논문공모전을 실시한다"며 "접수마감은 오는 9월30일까지"라고 밝혔다.

논문주제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응용불교, 계율 및 불교윤리, 불교사, 기타 전법과 포교에 필요한 이론 등 7분야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별로 논문을 작성하되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대학에 제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량은 A4지 20매 내외며, 요약문 2매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수논문 시상식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대상에 장학금 300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논문작성법이나 지원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원은 "창의성, 논리성, 충실성 완성도 등으로 나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현장에서

수용자 신행활동에 관심을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준비하는 불자수용자들을 만나러 춘천교도소를 찾았다. 법회가 열리는 강당에는 40여 명이 모여 법문을 듣고 있었다.

현장에서 본 수용자들의 신행활동 여건은 열악했다. 교도소라는 장소 특성상 당연할 것이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불교법회는 교도소 내 소위 '교회당'이라 불리는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회당이라는 이름처럼 강당 안은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예배용 의자에 앉은 수용자들은 어색하기까지 했다.

외관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에도 차이가 크다. 넉넉한 사식과 영치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예배가 있는 날은 120여 명이 이곳에 모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교회에서 춘천교도소에서 예배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고, 심지어 순천에서까지 찾아온다고 한다. 물론 불교에서도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에서 활동하는 홍천 백락사 주지 스님과 서울의 포교사단 교정교화팀이 불교법회를 후원한다. 하지만 정작 춘천지역 조계종 사찰은 참여율이 저조하다. 때문에 타 종단에서 교정교화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문호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죄를 지었지만, 수용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징역생활 속 감로이다. 부처님께서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교화하셨듯이, 이들에게 자비와 보시행을 실천하는 게 불자의 역할 아닐까. 춘천교도소 수용자들의 바람은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을 갖는 것이다. 불감 안에 부처님을 모셔두었다가 법회 때마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법한 불단에 불상을 봉안해 법회하고 싶다는 꿈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행자입문교육, 19일 입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올해 2차 행자입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지난 1월15일부터 3월까지 교육원에 등록을 마친 행자와 이전 입문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행자로, 총 150명이다. 이들은 3박4일간 '발심행자의 공동체 생활' '부처님의 생애'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출가자의 길'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초습의, 염불교육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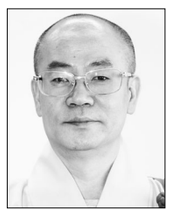
한편 '행자교육운영에관한령' 제13조에 의거해, 입문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행자는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없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조계종 포교연구실장에 법상스님

포교연구실장에 법상(法常)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은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신임 포교연구실장 법상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포교연구실장으로 임명된 법상스님은 1980년 부산 범어사에서 덕명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상스님은 범어사 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한 후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충분히 뜻을 펼쳐 포교연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상스님은 "포교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 〈문서기록〉 〈사진, 녹음테이프〉 〈큰스님유품 및 박물류〉 〈봉축 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
E-mail : park5149@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불교신문사

법화경 강의 및 실천수행(사경) 수강생 모집

· 1987년 해인사 출가
· 1988년 범어사 사미계 수지
· 1992년 범어사 비구계 수지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대학원 석사졸업(법화경 전공)
· 공군 군법사 전역
· 공군 보라매사찰 주지 등 5개 사찰주지 역임
· 강남 봉은사 교무국장 역임
· 현) 동국대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법화경 전공)
법화경연구원 법성사 주지

많은 대승경전 중에 부처님은 법화경을 최고의 법이자 최고의 깨달음이라 했으며, 부처님 입멸 후 많은 이들이 법화경 독송 및 사경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행복과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화경을 전공하고 이번에 새로 『한 권으로 쓰는 법화경 사경』과 『법화경 사요품 사경』을 발간하신 법성스님이 법화경의 경전내용을 불자들의 근기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화경의 진면목을 열어 드립니다. 『경전학교의 법화경 강의』와 『법화경의 네가지 보석』 강의와 법화경의 사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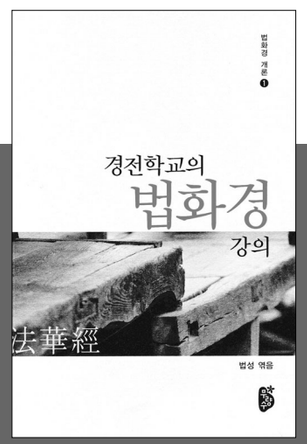
법화경연구원 개설 강좌 안내

모집중인 강의 (교재 : 법화경의 네 가지 보석)
- 주 간 : 화요일 오전 10~12시
- 야 간 : 화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 강의일정 : 5월 3일(화) ~ 6월 28일(화)
- 모집인원 : 오전 25명, 야간반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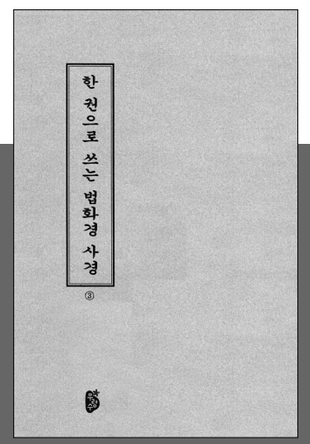
진행중인 강의 (교재 : 경전학교의 법화경 강의)
- 주 간 : 목요일 오전 10~12시
- 야 간 : 목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 강의일정 : ~5월 26일(매주 목요일)

문의 : 010-3659-3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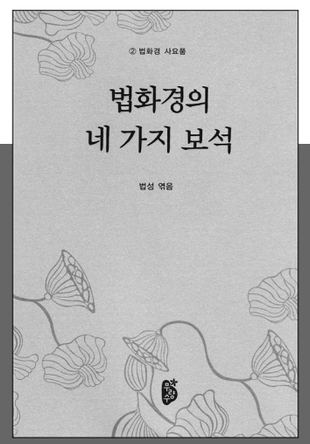
법화경연구원 개원 및 출판기념 법회
『법화경의 네 가지 보석』
『한 권으로 쓰는 법화경 사경』
『법화경 사요품 사경』
4월 20일(수)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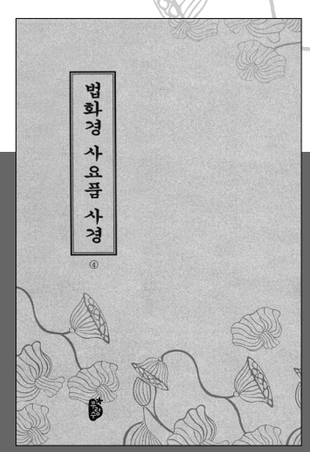
"법화경 공부의 첫 걸음"
법성 엮음
245면●12,000원



"초심자도 할 수 있는 사경 길라잡이"
법성 엮음
사경책●12,000원



"법화경의 보물창고 열어주는 열쇠"
법성 엮음
212면●12,000원



"부처님께 다가가는 법화경의 결정체"
법성 엮음
사경책●12,000원

매주 화요일 주·야간 『법화경의 네가지 보석』, 매주 목요일 주·야간 『경전학교의 법화경 강의』를 저자가 직접 강의합니다.

장소 : 법화경연구원 법성사(조계사 옆 두산위브 502호) 다음 카페 : 법화경연구원 문의 : 010-3659-3303 ※개원 및 출판기념법회에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참석자는 저자가 직접 서명한 신간 3권 선물로 드립니다.